

2. 예수를 믿어야만? - 사랑에는 의무가 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주부터 우리는 어려운 질문 명쾌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기독교인은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의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공부 도중 한 사람이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진도가 나가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임태하여 아이를 낳느냐? 그럴 수 없다. . .”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당시 구봉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거 참 이상하네,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맹목적이지 않은. . .

나카 겸블이 쓴 [인생의 의문점 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프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 와야 하는 상황인데, 차 안에는 아이들이 쓰는 변기통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변기통을 깨끗이 비우고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다 차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곳을 지나가던 중동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지요.

선교사님이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고는 밖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례합니다. 내 친구와 나는 당신이 믿는 종교와 다르지만,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겉을 보고 속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겸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메일을 통해 접하게 된 어느 성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 제가 드리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아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평계거리 삼아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목사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닌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조상님들,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 등은 무엇인가? 구원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기꾼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하여 구원한다고? 개소리 하지마라.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쇼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그럴 거면 예수는 뭐 하려 죽었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하고 모순되며 그렇다면 엉터리다.. 그런 엉터리를 왜 믿어야 하는가?

양심 구원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낙태, 유산, 사산 등으로 죽은 아이들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은 아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구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느니 공평하신 분이라느니 하는 너희 기독교는 사기다... 그런 엉터리 구원론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꼭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지혜를 저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답해 주기로 했습니다... 워낙 완악한 심령이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군요.

먼저 저 자신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말을 해야 겠군요.

신학교를 다니고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그 어떤 이해보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고백되더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것을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거부하는 것이겠지요.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철학, 정치, 윤리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암으로 믿으려 하였으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신앙은 얇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컵에 독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냐, 이 물에는 독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 . .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 부르지요.

그러나 이 선행은총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는데. . .

그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오고간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보편적인 의문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땅위에 수많은 타 종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대치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말입니다. 이 조건에 의하면,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해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걸림돌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대답인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

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요 불편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13억의 이슬람교도들, 9억의 힌두교, 3억 6천의 불교인, 1천 4백만의 유대인, 그리고 19억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약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 속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한 친구 이웃들,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전도를 했는데 자신은 결코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면, 자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모순이 아니냐는 것 이지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인가요? 이러한 질문 둘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문제 풀어 나가기. . .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종교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종교,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 1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제 3세계의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운동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선교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Mohandas Gandhi 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이 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관용과 사랑을 이야기 하며, 보

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왜 서로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John Maxwell의 지적에 의하면,

많은 종교들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핵심적인 가르침에 도달하다 보면 보다 현격한 차 이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 간의 차이는 평화를 깨고 전쟁과 박해 증오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확신과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성이 있다면, 진정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다른 종교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서로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인류 역사에서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Mission'이라는 영화에 나오지요. 원주민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식민지 주의자들과,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감싸 안았던 신부의 죽음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편협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요, 교만한 바리새적인 모습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더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얼마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종교 간의 동질성과, 서로간의 관용을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들 종교를 얼마나 이해하며 동의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무척 강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기독교만큼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반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계 인구의 75%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유일한 길"이 될 수 없다.
2.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신실함은 자신들의 확신에 의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로 "유일한 길"이 아니다.
3. 기독교가 주장하는 배타성과 편협성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고집스럽다. 이러한 오류를 안고

어찌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다고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예로 수세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보면서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지율이 30% 내외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신념으로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의 강도가 진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세요.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 내려진 판단들이 사실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 이단들을 보면서 그들의 강렬한 확신,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재림, 이장림 사건들을 통해 잘못된 확신이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포용하거나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쓰는 기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는 아무 곳에나 내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인가요?"

우리들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다른 종교의 사람들, 복음을 접하여 볼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R. C. Sproul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Reason to Believe]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공의롭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본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죄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로마서 1장 18-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죽어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응답하도록 책임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릇 윤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윤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윤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윤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분을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과 길로 택하시기 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시오. 그 분은 그 분의 길을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의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에베소서 2장 1-2절, 8-9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죽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시대마다, 그 문화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우리의 의무

무조건 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흔히 오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조건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순수함, 성실성, 관용과 같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빛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공부를 하지 않은 채 시험장으로 가서 성의껏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를 받은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교수님, 저는 분명히 제가 느낀 대로 성실하게 섰는데 어떻게 낙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honest)하고 진실(sincere)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은 아주 정직하게 틀렸네. 그리고 진실하게 실수를 했군. 자네는 낙제야. . ."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이 설파하는 이론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명확한 정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사적이라는 이유로 타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관용을 베풀다면,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친구와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Cliffe Knechtled의 [Give Me an Answer]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에 있어서 진실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다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신은 그냥 집으로 가서 종양이 온몸에 퍼지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내가 수술을 해서 제거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의사는 이 종양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것을 압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의사라면 환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종양이 당신의 몸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지요. 이 말은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저를 믿고 수술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실을 가지 순수함과 성실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신사적이어야 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신심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바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헌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아주 특별한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가 여섯 살 때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 1호는 진주 목걸이었다. 그 목걸이가 진짜 진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았다.

수지는 어디를 가든지 그 목걸이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예쁜 액세서리 함에 잘 넣어 두었다.

수지는 아빠도 무척 사랑했다. 아빠는 사업으로 인해 며칠씩 집을 떠나 있곤 했다.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은 언제나 떠들썩했다.

어는 날 수지는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와 함께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딸을 침대에 누이며 아빠가 물었다.

“수지야, 아빠를 사랑하니?”

“응,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

“어떤 것 보다 더?”

“응. 어떤 것보다.”

잠시 말을 멈춘 아빠가 다시 물었다. “진주목걸이보다도? 그렇다면 너의 진주 목걸이를 아빠한테 줄 수 있니?”

그러자 갑자기 고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수지가 대답했다.

“아빠, 그건 안 돼. 내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알았어.” 아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수지에게 잘 자라며 뽀뽀를 해 주었다.

아빠가 나간 후에 수지는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 날 일어나서도 수지는 생각했다. 아침 내내, 그리고 그날 오후에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이 되자 수지는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아빠에게 갔다. 목걸이를 내밀며 수지가 말했다 “아빠, 난 진주 목걸이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 자, 아빠가 가져요.”

“정말이니? 아빠는 무척 기쁘구나.”

아빠는 기뻐하며 자신의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빠가 네게 줄 선물이 있단다.”

아빠는 수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무언가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짜를 내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품을 주시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걸음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보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홉 걸음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